

“주권자 시민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

2025 광주 광산구 현황·주요 역점사업

- #현황**
- 인 구 수 40만654명
 - 면 적 222.9㎢
 - 행정구역 21개동 791통 3346반
 - 직 원 수 1229명
- #역점사업**
- 1313 이웃살림 21개 동 전체 확대
 - 특례보증과 카드 수수료 지원
 - 골목형상점가·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 전기자전거 보급 지원 시범사업 추진
 - 광산뮤직ON페스티벌 전국 축제로 육성



2025 새해설계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시민 참여 자치분권 체계 강화
사회적 대화 통한 경제혁신 전환
보호망 더욱 촘촘한 복지혁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박차

“2025년 광산구는 주권자인 시민의 지혜와 참여로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견인하겠습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광산에 사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안팎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권리를 떠받치는 이로운 광산, 새로운 광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같은 을사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주력할 구정의 6대 방향으로 우선 시민의 뜻과 참여로 구정을 운영하는 자치분권 체계 강화를 내세웠다.

박 청장은 “자치분권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역량과 권력을 누구와 얼마나 어디까지 나누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를 위해 동 미래발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시민이 행사하는 재정주권의 범위와 폭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문호를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주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로 경제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민생 위기에 대응해 특례보증과 카드 수수료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주고, 골목형상점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에도 주력하겠다”며 “주거, 일자리,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스스로 그리는 미래에 도전하는 청년을 돕고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시설 개선 등으로 우리 농업이 도시와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고 강조했다.

더욱 촘촘한 복지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그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1313 이웃살림’ 사업을 21개 동 전체로 확대하고,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과 사회적 처방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다”며 “천원한끼 식당 운영과 경로당에 점심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장애인 재활과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 청장은 “광주 대표 명품길을 내건 황룡강생태길 30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비 33억원을 확보한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하고 호가정 경관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명소가 가꾸겠다”며 “2회 연속 대성공을 거둔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지역경제 활

력을 견인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신설,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등 광산의 교육 속원이 해소되는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성공적 첫발을 내디딘 광산세계야시장, 고려인 마을과 함께하는 월곡동 브랜딩 사업 등 국제도시 도약에도 속도를 높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과 건강, 쾌적한 광산의 체감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문가, 시민과 연대하는 안전 거버넌스로 재난대응 수준을 높이고 자율방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등으로 안전 체감도를 올릴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비나 눈 피해에 대처하고자 현장 중심 대책을 세우고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취약지역 예찰에 힘을 받침이다.

박 청장은 “삶터와 일터로 찾아가는 상생보건을 확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은 치과, 별밤 야간교실, 건강강좌 종목다양화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초고령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사업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이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공동주택 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지원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전기자전거 보급 지원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광산구 거주(2년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매 시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병규 광주구청장은 “주권자인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운영하는 광산구정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일에 힘쓰겠다”며 “시민 뜻으로 설계한 올해 정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기자

동구, ‘온리(溫里) 동구카’ 첫 시행… 관용차 공유 서비스

주말·공휴일, 사전 신청해야 가능

광주 동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공서 공유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리 동구카 공유 서비스는 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등)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용일 기준 26세 이상 70세 이하 유효한 운전 면허를 보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 대상자가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설정했다.

온리 동구카 공유서비스는 접수 순서에 따라 무상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나, 이

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일정 기간 이용이 정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가까운 구정에서 운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면서 “동구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희자원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홈페이지와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현기 기자

서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오는 22일까지 11명 이내

광주 서구는 오는 22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실행의 동반자로서 활동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 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여성친화 공간 및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과 공동화장실 불법촬영 및 유포·확산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

방활동을 전개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해 앞장서고 있다.

모집인원은 11명 이내로 여성친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서구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서구 양성평등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evok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각종 역량교육과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활동 실비 지급,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활동 우수자 표창 등이 제공된다. 정상이 기자

북구, 주민 홍보맨 ‘부끄(북구)리에이터’ 모집

연기부문·댄스부문 2분야 모집 최대 30만원 및 봉사실적 혜택

광주 북구가 주민이 주인공이 돼 북구의 구정소식을 홍보하는 ‘부끄리에이터(북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끄리에이터는 주민이 구정 홍보 콘텐츠를 기획과 출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구정 홍보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소통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정책이다.

부끄리에이터로 선정된 주민들은 연기

를 통해 구정을 홍보하는 ‘연기 부문’과 최신 유행 춤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댄스 부문’에서 활동하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완성된 콘텐츠는 북구 SNS에 게시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대본 작가 1명, 연기자 4명, 댄스팀 2팀이고 모집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며 평소 구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의 주민이다.

북구는 부끄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제작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활동보상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활동경력증명서 발급,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 실적 등록, 성과 우수자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홍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정책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리에이터가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남구, 자전거 치유샵 이용자 1700명 ‘인기’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자전거 치유샵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자전거 치유샵이 9개월간 이용자 1702명을 달성했다.

지난해 3월19일 구청 별관 1층에 문을 연 자전거 치유샵은 자전거 수리 및 공유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 치유샵은 같은 해 11월3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0일간 손님맞이를 펼쳤다. 9개월동안의 이용자는 1702명으로, 하루 평균 12명의 라이더가 치유샵을 찾는 셈이다.

방문 목적별로는 자전거 수리를 위해 찾은 이들이 1618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체인 오일 도포를 비롯해 핸들과 안장 높낮이 조절, 타이어 공기압 체크 및 펑크 정비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다른 이용자 84명은 공유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 자전거 치유샵을 방문했다. 현재 자전거 치유샵은 일반 자전거 11대와 아동용 자전거 11대, 전기자전거 3대 등 총 25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치유샵에는 날씨가 라이딩에 적합한 봄, 가을철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매시간 3대 이상의 자전거가 정비·점검됐다. 윤준명 기자